The Korean Pacific Weekly

"Established, Sept. 1913"

제九五八호 단기四二八八년四월二十一일 매금요일 一九五五년六월十일

published by DONGJI HOI
KOON HO MIN, PRES.
MUESEL G. CHUN EDITOR
Bok Cha Ahn Editing Mgr

Entered as 2nd class mail matter 14 July, 1944 at the Post Office at Honolulu, Hawaii, U.S.A., under the Act of 3 March, 1897.
Subscription Rate: $10.00 Year Per Copy —20¢
Add: 931 N. King St. Honolulu, Hawaii P. O. Box 1573 Phone 89849

사장 민근호
주필 전진휘
영업부장 전진휘
발행인겸 편집 아복자
발행인겸 주필 동이회관니
대금 一년十二월분 四
전화 ○○○○○

동지회 三一대 경각

발휘 三·一 정신 환귀 빈만동지

一、우리 독립 선언서에 공포한 공약三장을 실시함지니 三·一 정신 을 발휘하야 못다지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야 희생적 힘도동을 우리의 대업 을 성취하자

二、조직적 힘도동이 성공의 요소이니 귀인 힘도동을 「특별」 바라고 단체 범위 안에 있어 성활한 한도내 공약 三장을 준수하며 지휘를 복종하자.

三、경제 자유 민족의 성명이니 자작 자급을 도모하자.

쌔끗한 도시 만들자

리대통령은 二十七일 뜻을 가지고 이신 거짓을 고운시들을 통한시 담화를 아 창을로 큰고헌을 한거시 발표하여 우리가 우리의 도시를 아름다운 저건한도로 우리 나라를 저건한도 삼이 이서야 말을 저건하도 기쓰며 아보도도 우리 나라를 세웟우 하게 만들도록 모든 국민이 덕국 힘쓰라고 국민에게 요청 하였다.

전선 각처에서 우리군인 들이 건축과 농사와 사방 산림 보호 공사에 전적으로 아라서 도시 단장을 하고 한 고헌하고 수부 지구 에 이나 주직이 추잡 한 것이 군인들이 학교와 관공청과 초막 가옥 가지 건설한 서구민 성활에 큰도움을 주어서 이직이 민들이 만히도 라와 아는것서 지년며 농사 도시작하여 깨끗하고 도시 건설에 대한 단히 기뻐서 감사는 뜻을 표 하였던 것이다.

거기서 아우그 일을 지난는데 전에는 집이 업서슨데 이번에 가보니 집도 만히 지어 노아놋고 선대하게 만들려고 자잔한 자리를 다치수지 못 하고 이스나 아직도 추 아 보아슨데 거물 실로 단단 하고 이스니 청결 선명이 한 데다 건강을 히아 발전이 스방을 거스로 성가 되어스다

의 저우는 제일 먼저 적 군의 파괴를 당한 고시이로로 미군들이 청우부터 자기도 이 학교와 교단과 문화관 기함을 보고 도시를 저건하 기 시작하여 우리와 미국이 로 한는것시 버로 어는줄을 아 도시를 모범 도시로만 도시로만 만들려고 저건하고 저건하고 보기에 상당 하 게 만들려거에 힘써야 하겠거스 이다.

우리가 도시 건설 한데 대한 민국 운동의 위원 회에선는 귀선된 저일분 거류민단 국회 「옵서벅」를 이 의입시 승인 하여스 단는바 도동에단은 단음과 가스다.

정찬진 김관남 김득 한 김이여준 김득용 이원 관에 동지 하여야 고 이직 이일을 철제히 이힘치 못하 헌법 초사력위 저부무 세 하며 헌치만 하여도 三빅 사에 대한 저한미 사에 의하여 외국인 주의 국가 사본에 의하여 외국인 사서 상인 성공의를 조사 주에 이서 상인 성공의를 조사 주에 이라고 하다.

한편 사세 단국국가에의 대한 민국 운동 위원 회 김이여준 김득용 이원 관에 동지 하여야 고 이직 이일을 철제히 이힘치 못하 헌법 초사력위 저부무 세 하며 헌치만 하여도 三빅 사에 대한 저한미 사에 의하여 외국인 주의 국가 사본에 의하여 외국인 사서 상인 성공의를 조사 주에 이라고 하다.

이어 동단국자는 외상 도동목 문제에 대한 저한미 국 사공소 회의소의 항의에 의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저한미국 사공소 회의소 와 공식 회합을 통한하여 외국 인 상사의 동목과 납세를 조공응하고 수수 절차라 든 지 세법을 주지 시키바 이 숨에도 불고하고 협력치 안 하며 이제 서상로려 수수 양 시간 외상에 대한 부단과 세를 운운 한단것은 어불 성설 이라고 지적 하여스다.

이소도 최급하여 과세 합거스 이라고 한다.

이어 동단국자는 외상 도동목 문제에 대한 저한미 국 사공소 회의소의 항의에 의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저한미국 사공소 회의소 와 공식 회합을 통한하여 외국 인 상사의 동목과 납세를 조공응하고 수수 절차라 든 지 세법을 주지 시키바 이 숨에도 불고하고 협력치 안 하며 이제 서상로려 수수 양 시간 외상에 대한 부단과 세를 운운 한단것은 어불 성설 이라고 지적 하여스다.

이어 일국단체 미한회 정기 대회에 저서민이 참가 할거스을 요청 하며 대량 단과 가스치 전국민 에게 긱을 보니고 이스다.

이번의 「한도야말 정권 그의리를 비바한과 이분의 공로 전선에 이분은 국민의 여우 적 변이을 여스라도 미국 유세계 에 이유도로 응서할 의회의 외교위원장 「조진씨」

분쇄하자 일세의 요○공정책

서울 운동장 에서 국민 대 회

이는 최근 일본이 그의 국제적 체세에 이서서 용공 정성적을 써가며 군국 주의 를부활시켜 저차 제국주 의적 침략적 힘도동을 노골 화 시켜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세계 각국에 이에 대한 여로운을 환기 식힘으로 이분의 「후계를 센도 력 미주 제의 자유편지를 수포 하자는 거시다.

미국은 몰름지기 고귀 한 제도 주의 와 제국 주의 의 부활에 이용되지 안도록 힘야 할거시다.

이분은 제국 주의에 저기와 「한도야만」 니각의 용공 정성적은 전선유 세계에 군 력을 초학하고 적식 제국 주의와 함께 아세아 평화 를 교란하는 파괴 힘위이다

미국 전부는 니일 전적 에 이서서 제국 주의 의 잔처 자 바도 미도 이분의 건 심적를 엄격히 구법 하고 이분은 국민이여 「한도야」니 각의 용공 정성을 방이임 하면 불원 이분은 적화 멸 망의 위기가 올거시니 용 군 주의 잔를 타도하고 리대 통령의 주장 하는 반공 노선에 이분은 국민의 여우 적 변이을 여스라도 미국 의회의 외교위원장 「조진씨」

이 미국의 해학을 비도미저 그의리를 비바한과 이분의 공로 전선에 이분은 국민의 여우 적 변이을 여스라도 미국 유세계 에 이유도로 응서할 는 그로진 대일은 발일이을 즉 시서정 하라 미국은 반공 제일선 에서 전자우 세계 를 대신하여 헌로하는 한 국을 지구 위노하여 불근 막만를 지구상에서 이로스 히 고 전이류가 위한은 우위와 평화와 중일한 세계계 건 막만를 지구상에서 이로스 히 고 전이류가 위한은 우위와 평화와 중일한 세계계 건 자를 일일 하게다는 리대 통령의 분부가 十七일부터 로 외무 지부 뉘부동 사부에 전달 되었다 한다.

이힘치못하면 문치, 리대통령 단국자 에게 강 력한 분부 죽 외인 이북에 관하여 는 외무부 에서 무슨 목적으 로 들어 온는지를 미리 뉘부부 에서 조사 하여 보고 하라고 하였다 한다.

이힘치못하면 문치, 리대통령 단국자 에게 강 력한 분부 죽 외인 이북에 관하여 는 외무부 에서 무슨 목적으 로 들어 온는지를 미리 뉘부부 에서 조사 하여 보고 하라고 하였다 한다.

◆ 저일 거류민단 국회 「옵서벅」 귀선

대한 민국 운동의 위원 회에선는 귀선된 저일분 거 류민단 국회 「옵서벅」를 이 의입시 승인 하여스 단는바 도동에단은 단음과 가스다.

외국인 상사과세에 만전 기하라

十八일 관변 소식통에 의하면 국가 재정 의 일부 를 충당하기 위하여 외국인 상사 과세 에 대한 저세에 만전 기

고국통신

고유신 발표(제一九七호) 四二八八四二二

리대통령 서신은 이날 제四차 三군합동 추도식에 임석하신후 다음과 가온 감회기념 담화를 발표 하셔었다

나가 오늘 전사한 우리 육해공 장병 추도식에서 어든 감사을 먹으시고 거룩하신 자리가 되게 하시고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육해공 장병 추도식에서 어든 감사을

내외국사

◆ 아세아 에서도
[찬 평화 신념 늘어나 반론]—(와싱톤 고도동 특파원 발)— 미국 전우 다국국은 주공국이 미국인 비행사 四명을 석방 한것 같은 아세아에서도 「찬 평화」가 시작 될 신조이도록 하다고 용요시 하고 이소며 주공고과에 즉접 교섭에 준비 하세를 하고 있다.

三十일 [뉴—데리 AP 전은 「맨슨」 특사단 으로서 주공고은 대만 문제를 국니 문제로서 취급한는 립장을 요로서 국민 전우와 교섭할 준비가 이스고 전하고 주공고 전우의 힌도 완할을 지한하여왔다.

이 러한 보도에 대하여 미 국 단우국은 공식 보고가 없고 단고하여 의견을 지소로 하기를 피하고 있스나 주고요도 적어도 죽적 교섭을 하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스다.

어떠무에 「맨슨」 인도 특사가 외쉿톤을 바운하고 북경으 회담의 닌용을 보고 하기로되여 이스나 미국 전우도선은 주공고과에 즉접 교섭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 저편서 돌 미국동전략
[뉴—욕 一일 고도동 특파원 발]— 주공이 미국 고운군 비행사 四명을 석방하며 다른 十一명은 교섭에 씨라서는 회한 할부수 있다고 주공과 사령관은 말하고 있다.

◆ 미국 비행사
十一명은 석방?
(와싱톤 A P 三일) 마닐라 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라이스 우부 인디아」 지 한국 이로 一五八四 호를 보면) 외국에서 보니 준구 호를 보면) 외국에서 보니 준 신바관들을 소도도리치 팔아 창로부한 사회단체 직원 비 이 또탑로 이는 「기도국교 세계 봉사 회」 직원 김모라는 사람인데 지리산 칙구로 수호로부 들이 속이 시원 할리이요 니 석 한는 놀스

고군단도 구호 물자를 보 니 준 외국 인 들이 이러도식 라라고 도수 아주나 할리이 고 도 수 아주나 할리이 니 한국에 난민들 보단도 고 안 되어서 음식고도 잘 라 주는 것을 단박에 보 코 남 한는 거슴을 단박에 보 고 안 되어서 음식고도 잘 라 주는 것을 단박에 보 니 한국에 난민들 보단도

인사소식

◆ 양기전씨 자제 환가

양기전씨 셋째 자제 이동병이 동벼로는 이북 북 힌도에 가서 二년을 구부 에 부부하가 또다시 자원병으로 三년을 더군인으로 이스 게 되로로 부모 허제를 받 대보기로 하고 집금 양처를 모시고 이스나 수일간 이북 으로 간다 한다.

◆ 가약국 부인

이북과 한국 으로 여행 가약국 부인은 금번 이 일본에 있는고로 이북 에가 서 씨님도 만나보고 우리 대 한에도가서 친히다 구경하 고 약三주일 후에 돌아오 기로하고 금주 사일 四일 죽 한다. 九일날 비행기로 가시는 를 보시는데 가중이 다 기시버

◆ 서치근씨 별세

포사우 둘 이시고 호항 대한인 부인회 회장의 가장 되시는 서치근씨 세서는 로 인 으로 오민도 안 시고를 하시 는 가운데 천주교 병원 에서 의사에 진찰로 병국이 무효 함으로 六월 七일 상오十一 시에 세사을 떠나셨다 한다.

◆ 리명선씨 내사

리명선씨는 아니라 사 가 다건강 한다하며 스 은 와히아와 병원 에서 힘 지 국어 바오 을 성이 로 주 선 대 가 서 서 의 리 주 어 가 서 서 서 우 리 동 지 국 어 바오 을 성이 로 를 울 림 의 며 가 주 어 가 서 서 서 금 월 주 어 가 서 서 서 도 두 분 이 나 며 서 분 사 관 계 로 두 분 이 나 十八 시 로 에 비 행 하 신 다 하 시 고 분 들 은 이 번 에 이 번 에 서 울 을 떠 나 셨 다 한다.

◆ 리명도씨 별세

리명도 포상 부위는 六월 六일에 별세 하여스 데 서 편지를 차조시오

◆ 리경도씨 별세

리경도 포상 부위는 六월 六일에 별세 하여스 데 서 편지를 차조시오

◆ 리명선씨 도미

리명선씨 도미 하시는 본국서은 편지 한 분들이 지금 총령사관에 와서 립 수 천씨를 차 습니다 리명수 천씨 씨는 이주보 보시는국서로 총령사관에 가서 서 편지를 차조시오

◆ 김호부씨 내사

김호부씨 내사 하시는 본국서은 편지 한 분들이 지금 총령사관에 와서 립 수 천씨를 차 습니다 리명수 천씨 씨는 이주보 보시는국서로 총령사관에 가서 서 편지를 차조시오

◆ 김호부씨 별세

김호부씨 별세 하시는 본국서은 편지 한 분들이 지금 총령사관에 와서 립 수 천씨를 차 습니다 리명수 천씨 씨는 이주보 보시는국서로 총령사관에 가서 서 편지를 차조시오

◆ 유시천씨 도미

유시천씨 서울 흑백식구 연과장은 一九五五—六七—十七약 四주일간도 미하여 보건 힘 저의 유럽 시설을 연구 시찰차로 하와이와 로스인지릭스 처 카고 뉴욕 와 워싱톤 가지 가서 모든시설을 연구 하고 연구차로 여행중 이 번 시고 연구 차 유럽 서는 고스 김 보빈 이란 이라 한다.

◆ 김조운씨 별세

김조운씨 별세 하시는 말부 하 는데 우리 포사우로 전인 이라한 다.

◆ 서치근씨 별세

포사우 둘 이시고 호항 대한인 부인회 회장의 가장 되시는 서치근씨 세서는 로 인 으로 오민도 안 시고를 하시 는 가운데 천주교 병원 에서 의사에 진찰로 병국이 무효 함으로 六월 七일 상오十一 시에 세사을 떠나셨다 한다.

천주교 병원 에서 별세 하신 서치근 씨에 장례식은 六월 十二일 상오 九시 에 발인하여 기독교 레빈당 에서 조 거행식을 거행후 누 에 서 묘지에 안장 하신다 한다.

◆ 와히아와 리명선씨는 천소년들을 보시다고

리명선씨 씨는 천소년들 을 보시다고 금주 사일 四일 죽 한다.

◆ 김호부씨 내사

김호부씨 내사 하시는 본국서은 편지 한 분들이 지금 총령사관에 와서 립 수 천씨를 차 습니다 리명수 천씨 씨는 이주보 보시 는국서로 총령사관에 가서 서 편지를 차조시오

◆ 김호부씨 별세

김호부씨 별세 하시는 본국서은 편지 한 분들이 지금 총령사관에 와서 립 수 천씨를 차 습니다 리명수 천씨 씨는 이주보 보시 는국서로 총령사관에 가서 서 편지를 차조시오

◆ 리명선씨 내사

리명선씨는 아니라 사 가 다건강 한다하며 스 은 와히아와 병원 에서 힘 지 국어 바오 을 성이 로 주 선 대 가 서 서 서 의 리 주 어 가 서 서 서 우 리 동 지 국 어 바오 을 성이 로 를 울 림 의 며 가 주 어 가 서 서 서 금 월 주 어 가 서 서 서 도 두 분 이 나 며 서 분 사 관 계 로 두 분 이 나 十八 시 로 에 비 행 하 신 다 하 시 고 분 들 은 이 번 에 이 번 에 서 울 을 떠 나 셨 다 한다.

◆ 김호부씨 내사

김호부씨 내사 하시는 본국서은 편지 한 분들이 지금 총령사관에 와서 립 수 천씨를 차 습니다 리명수 천씨 씨는 이주보 보시 는국서로 총령사관에 가서 서 편지를 차조시오